

인터뷰

김슬기 교수

여성의 생애 건강을 지키며, 다음 세대의 성 인식까지 가족처럼 챙기는 산부인과 선생님

김슬기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및 서울의대 산부인과학교실 교수는 자궁내막증, 난임, 가임력 보존, 폐경, 자궁근종, 로봇수술 등 생식 내분비학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와 함께 진료와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두 딸의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몸과 마음의 변화를 건강하게 받아들이도록 돕고자 2025년 『산부인과 의사 아빠가 초등학생 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집필·출간했다.

산부인과 의사 아빠가 딸들을 위해 하고 싶은 성 이야기

- #청소년
- #성교육
- #성건강

여성건강 이슈를 다룬다 보면 '진작 알았더라면' 하는 말을 종종 듣는다. 생애주기별 성교육은 건강한 삶과 성 인식의 출발점임에도, 정작 청소년 성교육에서는 '엄마와 아빠는 나를 어떻게 낳았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에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다. 그 사이 아이들은 디지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치되거나 왜곡된 내용을 접하기도 하고, 반대로 부모의 적극적인 사교육으로 정보의 우위에 서기도 한다. 정보 격차가 성 인식의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는 현실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김슬기 교수는 딸에게 전하고 싶은 올바른 성교육 메시지를 책으로 엮어 선물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부모로서 자녀의 성교육법이 궁금했다. 딸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하고 싶었는지, 사회와 공유하고자 한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몸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과 변화들을 '부끄러운 일'이 아닌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네 몸의 변화는 네가 소중한 존재로 성장하는 증거야.
언제든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Q1. 진료와 연구, 책 집필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조금 유치하게 들릴 수 있지만, 중학생 시절 방영된 <종합병원>이라는 의학 드라마를 보며 의사를 꿈꿨습니다. 자막에 나오는 의학 용어들을 노트에 적어서 외우던 그 시절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의대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가장 기억에 남는 실습 과정 중 하나는 분만 과정에 참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탄생이라는 경이로움을 느끼는 동시에 아직 풀리지 않은 수많은 연구 과제가 많다는 것도 깨달았지요. 인턴 시절에는 어머니의 갱년기 변화들을 지켜보며 여성건강이 가족 전체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실감했습니다.

Q2. 2025년 성교육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기존의 성교육 책과는 또 다른 시선이 느껴지는데, 어떤 동기가 있으셨나요?

책 제목 『산부인과 의사 아빠가 초등학생 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집필 동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저의 딸들에게 직접 주고 싶어서 집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딸이 초경을 맞이할 때, 주변에서는 초경 파티를 하거나 속옷을 선물하거나 한하는데 저는 막상 그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딸의 성격을 고려해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하고 싶었고요. 의학적 지식은 알려줬지만 많이 못 챙겨준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았죠.

사춘기 성교육 책을 선물해 주고 싶어서 찾아보았는데, 기존 책들은 종종 백과사전처럼 딱딱하고 의학적 용어로 가득 차 있거나, 약간 부담스러운 수위까지 알려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의사로서의 지식을 가족에게 전달하는 것도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직접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미뤄지고 있었는데, 둘째 딸이 초등 2학년이 된 해 병원 해외연수 기회를 통해 1년 반 동안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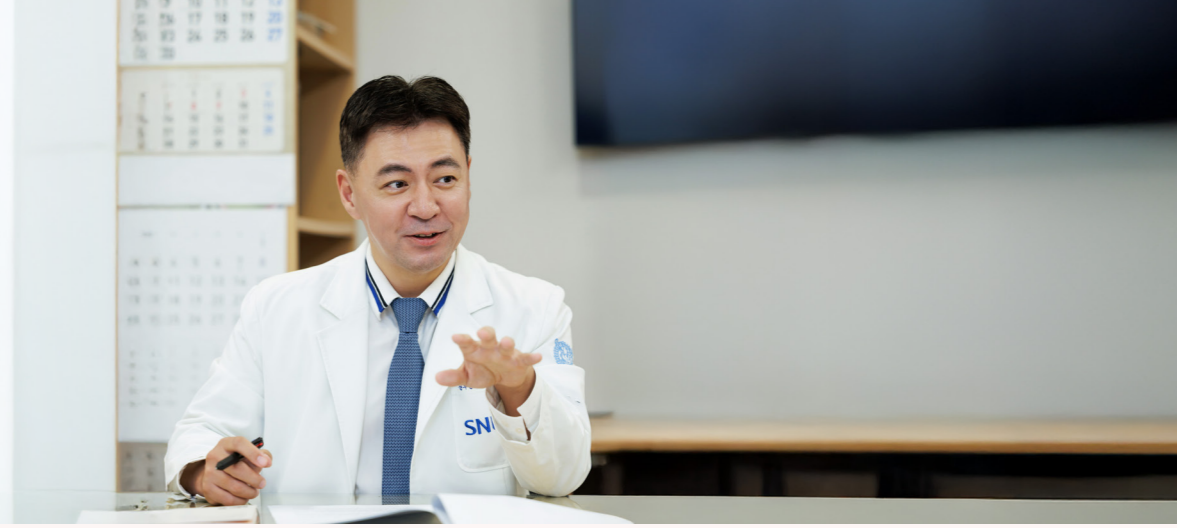
Q3. 무엇을 가장 전하고 싶으셨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요.

핵심은 '공감과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딸들에게 '자기 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성은 생물학적 사실을 넘어 감정과 연결된 영역이니, 아버지의 따뜻한 시선으로 몸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과 변화들을 '부끄러운 일'이 아닌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평소에 딸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 마음을 글로도 전달해 주고 싶어서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아주 많이 사랑해'라고 적었습니다.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부모, 특히 아버지와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면서 어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면 부모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몸의 변화는 네가 소중한 존재로 성장하는 증거야. 언제든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등 3-4학년 아이들이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크기로 만들고, 그림과 퀴즈를 더해 자연스럽게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초경 시기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 상담이나
체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되는 시기에는 기본 여성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확대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Q4. 책 출간 전후로 따님을 포함한 가족과 주변 반응이 어땠나요?

해외연수 기간 동안 아내가 직장 때문에 동행하지 못해 저와 딸들 셋이서만 미국에서 지내며, 모든 고민을 공유하게 됐어요. 성 관련 주제도 자연스럽게 나누었고, 그 대화가 책의 기반이 됐지요. 출간 전 딸들은 원고를 한두 시간 만에 읽고 세심하게 수정 의견을 주었는데, 실제로 교정에 반영해 출판했어요. 예를 들어 '하루에 두세 개의 생리대를 챙기는 것이 좋다'고 쓴 부분을 첫째가 '최소 서너 개는 필요하다'고 정정해 주기도 했지요.

출판일을 둘째 딸 생일로 맞춰서 선물했더니 둘째가 아주 기뻐했습니다. 학교에 가져가 친구들에게 선물하기도 했어요. 아내도 고마워했지요. 가족 간 대화가 더 깊어졌다고 느낍니다.

주변 의료진들은 자녀나 지인들에게 '선물용으로 딱'이라며 사인을 요청하기도 했고, 산부인과 선후배들로부터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며 많은 칭찬을 듣기도 했어요. 아들도 알아야 하니 이 책을 주겠다는 분들도 있었고, 사춘기 아들을 위한 후속서도 써달라는 목소리도 많았어요. 아동·청소년 단체의 전국 지부에 기부도 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자 대상으로 선물도 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 Q5. 부모로서 기억에 남는 자녀의 성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가요? 고민하셨던 지점이 있으셨는지, 어떻게 풀어갔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듯이 가장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 중에 하나가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엄마 아기씨와 아빠 아기씨는 어떻게 만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 아이의 호기심이 순수하다는 걸 느꼈지만, 너무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부담스러울까 고민했죠. 제 대응은 '비유'를 활용하는 거였어요. '꽃가루가 꽃에 날아가 씨앗이 되는 것처럼, 아빠와 엄마의 사랑이 만나서 네가 태어났어'라고 간단히 답해주었습니다.

부모가 염두에 둘 점은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부끄럽다고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건 아직 몰라도 돼'라든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와 같은 대답은 부모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을 만들고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감정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좋겠죠.

보통 성교육을 엄마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버지를 보며 남자의 역할이 정의되기 때문에 아버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고 아이들의 질문을 막지 않고 경청하려 해요. '여자는, 남자는 이래야 한다'와 같은 고정관념을 피하고, 어릴 때부터 성역할을 구분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이들과 활동적으로 놀며 자연스럽게 교육하려고 있어요. 부모가 서로 애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며 건강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 Q6. 사춘기 전후 자녀와 성 관련 대화를 나누며 이해와 소통이 깊어진 사례도 들려주시겠어요?

일상이긴 한데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면 습관이었어요. 처음에는 '일찍 자야 키가 크다'는 식으로 단순히 말하곤 했는데, 어느 정도 알 나이가 된 시점부터는 '초경을 하게 되면 그 뒤로는 키가 잘 안 커. 이런 이유로 남녀의 키 차이도 생기는 거야. 그러니 키 크는데 이 시기가 중요해'라는 식으로 좀 더 객관적인 정보를 주며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를 무조건 재우려 하는 게 아니구나. 엄마 아빠 쉬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하는 눈치였고, 스스로 수면 시간을 지키더군요.

● Q7. 진료하시며 청소년들이 건강 정보나 인식이 부족해서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도 보시나요?

자궁내막증은 통증이 심해도 '생리통이겠지' 하며 참고 지내다 증상이 악화된 뒤에야 병원에 오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갖고 존중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낍니다. 자궁내막증은 20~40대뿐 아니라, 청소년 시기부터 발병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¹ 일정 기준 이상 통증이 지속되면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도적으로 영유아 검진이나 예방접종처럼 초경 시기에 의무적으로 산부인과 상담이나 체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리통의 정도, 주기 변화 등 기본적인 정보를 의사가 확인하고 조연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인이 되는 19~20세에는 피임, 생리, 난소 기능 검사 등을 포함한 기본 여성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확대한다면 청소년과 청년 여성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른들도 잘 모르는 알쏭달쏭 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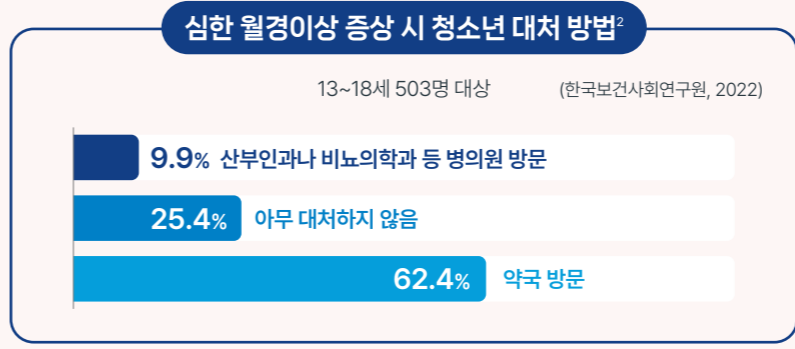
성장은 언제쯤 닫힐까?

A

여자아이들은 대개 15세 이후에 성장이 닫히는데, 보통 초경이 시작된 후 1~2년 내에 성장이 닫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직 초경이 시작되긴 안 되 시기가 키가 자라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초경 이후에도 조금은 더 늦게까지 성장은 경우도 있으니 바른 생활습관을 가지고 계속 키가 크도록 노력해볼게요.

남자아이들은 대개 17세 이후에 성장이 닫히는데,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보다 성장이 더 오래동안 열려 있기 때문에 키가 더 많이 자랄 수 있어 사춘기 동안에도 키가 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평균적인 키가 여자보다 남자가 더 크게 되지.

어른들도 잘 모르는 알쏭달쏭 퀴즈 일부 (성장판은 언제쯤 닫힐까?)





“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방된 성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 양질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공교육에 더 도입해야 합니다. ”

● Q8. 청소년 성 인식과 성교육에 있어 우려되는 사회 환경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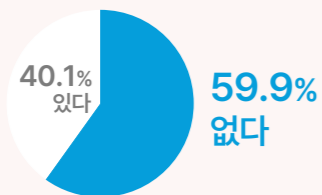
과거엔 학교나 책이 주요 정보원이었지만,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자극적 콘텐츠가 넘쳐나요. 재미 중심 영상이 잘못된 지식을 퍼뜨리거나 선정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의료 현장에서 청소년 환자들은 '콘텐츠에서 본 대로' 피임법을 시도하고, 보호자들은 '집에서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합니다.

온라인과 일상에서 접하는 성 관련 잘못된 지식의 예시로는 '자위는 무조건 몸에 해롭다'는 과장된 정보나 '특정 체위는 임신 확률이 낮다' 등 근거 없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 성교육 인식 및 실태 연구 결과³

초등학교 학부모 337명 대상 (한국아동간호학회 아동간호학회지, 2019)

Q. 아이에게 직접 성교육을 해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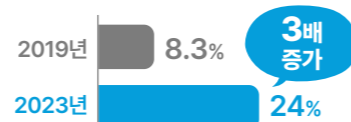
Q. 성교육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상위 4개



가장 위험한 건 '왜곡된 성 인식'입니다. 자극적인 콘텐츠가 성을 '즉각적 쾌락'으로만 보이게 해 건강한 관계나 동意的 가치를 무시하게 되죠.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2019년 8.3%에서 2023년 24%로 3배 증가한 건 이 왜곡이 현실 피해로 이어진다는 증거예요.⁴ 아이들은 '좋아요'를 위해 위험 행동을 하거나 가짜 정보에 속기 쉽습니다.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디지털 성범죄 비중⁴

성범죄 가해자 판결문 분석 결과 (여성가족부, 2023)



● Q9. 이러한 환경에서 부모가 갖춰야 할 역량은 무엇일까요?

부모는 자녀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길러주고, 부모로서 건강한 미디어 사용 습관을 보여줘야 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단순한 기기 사용 능력이 아니라, 온라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하고 안전하게 소통하며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하죠. 자녀와 스마트폰·앱 사용 규칙을 세우고, 정보 출처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습관 들이기, 개인 정보 보호와 디지털 권리를 인식하기, 사이버불링 예방과 대응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어른들이 디지털 기기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eBook을 읽거나 가족 일정 앱을 활용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따라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또 시청 시간, 연령을 제한하기보다 부모가 함께 시청하며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성 관련 콘텐츠도 부모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에서 함께 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적절히 모니터링하며 피드백을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필요할 때 학교 상담이나 필터링 앱 등 외부 전문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교육과 성문화 미래를 위해 구상하시는 바와 바람을 들려주세요.

후속으로 사춘기 아들을 위한 책과 첫째 딸 선물을 염두한 대학생 버전의 성인 에디션도 계획 중입니다. 지금 시대 성교육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위해 더 포괄적이고 상호적인 접근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식 전달을 넘어, 감정 지능과 윤리를 결합한 콘텐츠가 핵심이죠. 미래에는 AI나 VR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실감 교육을 하고, 부모·학교·사회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 관련해 '부끄러움 없는 대화 문화'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성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아이들은 더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인터뷰처럼 다양한 목소리가 모일 때, 성교육의 미래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 Q10.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성교육이 가정에서 시작되더라도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공교육에 디지털 성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보호자와 아이 간 지식 격차가 커지고, 공교육의 기본 내용과 사교육의 세밀한 접근 차이로 정보 불평등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성을 터부시하는 시선이 남아 있어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디어와 NGO의 캠페인으로 드라마나 SNS에서 건강한 성 이미지를 확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성 감수성'을 하나의 문화적 가치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존중'과 '동의'를 기본으로 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모, 학교, 사회가 연대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Q11. 해외 사례에서 한국에 도입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점도 있으셨나요?

딸이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받았던 '성교육 동의서'가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교육 수위, 실습 여부, 남녀 통합 또는 분리 수업 등을 가정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매우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느꼈고, 한국도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방된 성교육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의 양질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공교육 안으로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